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오 동 근(Dong-Geun Oh) **

목 차

- | | |
|------------------------|------------------|
| 1. 서론 | 3.1 패싯분석 |
| 2.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일반적 특성 | 3.2 각종 순서의 결정 |
| 2.1 문헌분류표의 유형 분석 | 3.3 분류기호의 선택과 적용 |
| 2.2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장단점 | 4. 결론 |
| 3.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 적용 | |

초 록

이 논문의 전반부는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열거식분류법과 대비하여 분석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일반적인 작성단계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결혼상담소용 분류표의 작성이라는 실예를 통하여, 패싯분석과 주류의 순서 및 열거순서, 배열구조상의 순서 등 각종 순서의 결정, 분류기호의 선택과 적용의 순서로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over the enumerative one.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general steps and related problems in compiling an analytico-synthetic scheme, and investigates the steps further including facet analysis; choosing order in main classes, citation order and order in array; and adding notations, through an illustrative scheme for a matrimonial agency's records.

* 본 연구는 1996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8년 4월 6일

1. 서론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법의 하나로 문헌분류가 있다. 문헌분류는 대개의 경우 그 문헌이 담고 있는 정보내용, 즉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헌분류는 필연적으로 학문의 분류에 바탕을 두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문헌분류는 문헌이나 자료의 실제적인 분류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학문 분류와는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문헌분류에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분류이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분류이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분류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의 문헌분류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른바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이다. 이 이론은 오늘날의 분류법 가운데 가장 이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CC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DC는 물론 우리 나라의 표준 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KDC)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류이론이 오늘날에는 정보 검색을 비롯한 그 밖의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장명섭 1992, 등 참조).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문헌분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체적인 분류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는 이 점에 착안하여, 문헌분류의 기초이론이라 할 수 있는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그 작성과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고려사항들을 결혼상담소의 분류표를 실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일반적 특성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류표의 일반적인 유형과 그 발전 양상에 대해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문헌분류법에 따라 작성되는 분류표들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아울러 이 가운데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문헌분류표의 유형 분석

다양한 정보나 주제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나 정보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기본 도구인 분류표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측면에서 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된 기호법과 구분원리에 따라 십진식 분류표와 비십진식 분류표를 구분한다거나, 지식의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분류표(general classification)와 특수분류표(special classification)로 구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는 이런 것들과는 달리, 분류표 자체의 구조와 조직에 적용된 원리에 의해 분류표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하나이다.¹⁾ 물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류표를 구분할 경우에도 학자들에 따라 반드시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리제철(1970, 7)과 정해성(1996, 453), Buchanan(1989, 35-36), Chan(1994, 261-262), Vickery(1960, 8)는 분류표를 열거식분류표(enumerative classification)와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김명옥(1986, 46-49)과 김정소(1983, 43-45), 윤희운(1998, 41), 이병수(1979, 43-44), 최정태 등(1998, 23-24), Hunter(1988, 6),²⁾ Mills(1962, 56) 등은 여기에 준열거식분류표(semi-enumerative classification)를 추가하고 있고, Ranganathan(1967, 94-110)은 이를 더욱 세분하여 순열거식분류표(purely enumerative scheme), 주열거식분류표(almost enumerative scheme), 주패시식분류표(almost faceted scheme), 고정패시식분류표(rigidly faceted scheme), 자유패시식분류표(freely faceted scheme)로 구분하고 있고, Kumar(1981, 68-76)는 고정패시식분류표를

완전고정패시식분류표(fully but rigidly faceted scheme)로 바꾸고 여기에 주자유패시식분류표(almost freely faceted scheme)를 추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류표의 구분정도는 이를 둘로 구분하는 경우에서 여섯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인도학자들의 경우는, 패시식 분류표의 경우에도 그것이 자유패시식이 아니면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Ranganathan, 1989, 8), 패시식분류표간의 차이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상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분류표의 유형은 열거식과 분석적 합성식,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절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열거식분류표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표에 과거와 현재, 예상되는 미래의 모든 주제들을 열거하게 된다(Ranganathan, 1967, 95). 아울러 이 유형의 분류표에서는 관련되는 지식분야를 어떤 분류특성에 따라 하위 주제로 계속하여 세분해 나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를 '계층식' 분류법 또는 '하향식' 접근법(top down approach)이라고도

- 1)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패시구조를 가진 분류표'(Mills 1982, 190)라는 분류표의 구조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패시식' 분류표(faceted classification)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특히 'faceted'라는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 분류표에 대해서는 '조합식분류표'(Buchanan 1989; 정해성 1996), '패시분류표'(사공철 등편 1996, 397; 圖書館問題研究會編 1982, 556; 이은철 1983, 54; Mills 1982, 190), '다면적 분류표'(김정소 1983, 44), '다원방식분류표'(河島正光 1987, 71-75)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패시식분류표를 '조합식'이나 '조합식' 분류표로 정의하게 되면 이 용어들은 분석적 합성식에 포함되어 있는 '합성식'의 의미와 동의어로서 'faceted'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이를 '패시식분류표'나 '패시구조분류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패시식과 분석적 합성식은 동의어로 간주하고,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 2) 이 책에서 Hunter는 패시식(faceted)과 계층식(hierarchical), 혼합식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 구조 원리에 따른 분류표의 유형에 대한 학자별 구분

리재철 정해성 Buchanan Chan Sayers Vickery	김명옥 김정소 윤희운 이병수 최정대 등 Mills	Hunter	Ranganathan	Kumar
열거식	열거식 준열거식	계층식 혼합식	순열거식 주열거식 주패식식 고정패식식 자유패식식	순열거식 주열거식 주패식식 완전고정패식식 주자유패식식 자유패식식
분석적합성식	분석적합성식	패식식		

한다(Hunter 1988, 34).³⁾ 따라서 이 분류표에서는 기본주제는 물론 합성주제, 복합주제 등의 모든 주제가 분류표에 열거되며,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미리 만들어진 분류기호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분류표 가운데는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가 열거식분류표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모든 주제들을 분류표에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에, 지식의 각 분야를 어떤 분류특성을 기초로 하여 패식(facet)으로 불리는 기본주제로 구분하고, 분류표도 이러한 기본주제와 이를 합성하기 위한 공통구분표(common isolate)와 특수구분표(special isolate)만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분류표에는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는 열거되지 않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실제 분류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들을 구성하는 기본주제와 공통구분표 및 특수구분

표의 기호들을 결합하여 구성하게 된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분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석(analysis)과 합성(synthesis)이라는 과정을 중시하여 (Ranganathan, 1989, 8) 부여된 이름인 것이다. 일반분류표 가운데는 CC(Colon Classification)와 BC(Bibliographic Classification)가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절충식은 열거식분류표와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방법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열거식분류표에 분석적 합성식의 기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준열거식분류표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표 1 참조). 일반분류표 가운데는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와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가 절충식분류표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3) Hunter는 열거식분류표라는 용어 대신에 계층식분류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색인에서 '열거식분류표'(enumerative classification)는 '계층식분류표'(hierarchical classification)를 보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용어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표의 발전 역사에서 보면, 1876년 Dewey에 의해 열거식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 분류표가 출현한 이후로 열거식 위주의 분류표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Ranganathan의 문헌분류이론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적 합성식 분류이론이 제시된 이래로, 특히 인도의 분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CC에 대한 연구와 Vickery와 Mills 등을 중심으로 하는 CRG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의 회원들에 의한 특수분류표에 대한 분석적 합성 이론의 적용을 통해 분석적 합성식 분류이론의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기존의 열거식 위주의 분류표에서도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기법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헌분류표는 열거식분류표로부터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2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장단점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열거식분류표보다 후에 나타난 분류표이므로, 당연히 열거식분류표가 갖는 문제점이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대표적 유형인 CC의 고안자인 Ranganathan은 열거식분류표의 대표적 유형인 DDC의 문제점 - 특히 어떤 자료가 다양한 측면을 나타낼 때 분류시 경우에 따라 주제의 특정측면을 나타낼 수 없는 문제, 미래에 출현할 주제들이 더 많은 합성개념을 가질 경우 이를 나타낼 수 없을 가능성

이 높다는 문제, 모든 주제들을 망라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 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Selfridge 백화점에서 조립식완구인 'Meccano-set'를 보고 CC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Ranganathan, 1989, 3). 결과적으로 Ranganathan이 파악한 DDC의 문제점은 열거식분류표의 단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그와 같은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열거식분류표와 비교하면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장점은 분류표편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열거식분류표에 비해 편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Hunter 1988, 58; Buchanan 1989, 38). 그 이유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유형의 표에서는 기본주제만을 열거하게 되고,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는 열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거식 분류표에 비해 작성 시간이 적게 들고 작업도 덜 복잡하게 된다.

둘째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열거식분류표에 비해 부피가 적어질 수 있다(Hunter 1988, 58; Buchanan 1989, 38; Marcella & Newton 1994, 31). 그 이유는 합성주제와 복합주제는 물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같은 일반분류표인 LCC와 DDC, CC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피가 적다고 해서 분류작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를 사용

하여 기본주제는 물론 합성주제, 복합주제의 분류도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새로운 주제를 분류표에 삽입하기가 용이하며, 따라서 지식의 폭발적 발전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Hunter 1988, 58; Buchanan 1989, 43; Marcella & Newton 1994, 30). 새로이 출현하는 주제가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분류표에는 더 이상의 어떤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분류작업시 기존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합성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기본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본류만을 분류표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정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관련되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분류표에 이를 추가해야 하는 열거식분류표와 비교해 볼 때 그 이점은 분명해질 것이다. 아울러 모든 주제를 분류표에 빠짐없이 완전히 열거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이점이 아닐 것이다.

넷째로, 조기성(助記性)을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다(Marcella & Newton 1994, 31).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고, 공통구분표나 특수구분표를 전체적으로 도입하게 되므로, 기억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분류담당자가 자신의 도서관에 적합한 문헌의 그룹화 방식을 선택하기가 용이하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문헌의 그룹화에 영향을 미치는 열거순서나 패싯배열식(facet formula)을 선택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자국 우위(local

emphasis)를 취하기가 용이하다.

한편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류기호가 때로는 열거식의 경우보다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Hunter 1988, 58; Buchanan 1989, 43). 아울러 이와 같은 기호는 문헌을 서가상에 배열하는 데 불편을 줄 수도 있다.

둘째로, 분류작업시 열거순서(citation order)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류담당자가 더 많은 사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Hunter 1988, 58; Buchanan 1989, 43). 분류표 자체에 기본주제는 물론 합성주제와 복합주제가 열거되고 그에 대한 기호가 부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부여하는 열거식분류표를 사용한 분류작업과는 달리,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를 사용하는 분류작업의 경우는 열거순서나 패싯배열식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장단점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 적용

분류표의 작성은 실제 분류작업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며, 실제의 분류작업에서는 분류표의 작성자들이 고안해낸 분류표를 활용하여 문헌에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서가상에 배열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류표의 작성자(classificationist)와

분류담당자(classifier)는 그 관심사가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류표의 작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분류업무의 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울러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한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단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Ranganathan은 기본적으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의 단계를 아이디어단계(idea plane)와 언어단계(verbal plane), 기호단계(notational plane)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분류표의 작성과 실제작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문헌분류의 3단계에 대해서는, 오동근, 1994, 205-213 참조). Vickery는 특수분류표의 작성과정과 관련하여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Vickery 1960). Hunter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작성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Hunter 1988, 7-33). 한편 Buchanan도 명시

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Ranganathan의 3단계 분류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Buchanan 1989, 47-124, 작성 단계에 대해서는 59 참조). <표 2>는 이 가운데 그 순서를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Bliss와 Buchanan, Hunter, Vickery가 제시한 작성단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liss의 선택적 규정과 Buchanan과 Hunter의 색인작성 과정을 제외하면,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 작성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각 주제들을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패식으로 나누는 패싯분석(facet analysis)과 분류작업시에 각 패싯의 순차 - 이른바 주류의 순서와 열거순서(citation order), 배열구조(array)상의 순서 - 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기호법(notations)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의 순서에 따라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결혼상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분류표를 실제로 작성해 보면서, 관련된 문

<표 2> Bliss와 Buchanan, Hunter, Vickery의 작성단계 비교

Bliss의 단계	Buchanan의 단계	Hunter의 단계	Vickery의 단계
1. 전반적 개요작성	1. 기본류 파악위한 대표적 표본조사	1. 분석	1. 패싯분석
2. 주류표 작성	2. isolate의 그룹화	2. 그룹화	2. 패싯사용
3. 기호 및 조기성 부여	(패싯의 파악)	3. 배열구조의 순서결정	순서의 결정
4. 개괄적 체계표 작성	3. 하위패싯의 파악	4. 열거순서의 결정	3. 기호의 부여
5. 선택적 규정의 명시	4. 배열구조의 순서 결정	5. 본표의 순서 결정	
	5. 하위패싯의 순서 결정	6. 기호부여	
	6. 패싯간 배열순서 결정	7. 색인작성	
	7. 기호의 부여	8. 서문	
	8. 알파벳순 색인의 작성		

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1 패싯분석

문헌분류는 기본적으로 주제에 대한 분류로서, 주제분석(subject analysis) 또는 구분(division)은 문헌분류과정의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의 첫번째 단계도 역시 글자 그대로 분석의 단계이다. 특히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분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들을 어떤 분류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구성요소(component parts)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때 이 구성요소를 패싯(facet)이라 한다. 패싯분석(facet analysis)이란 이와 같이 어떤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패싯분석의 아이디어는 1930년대에 Ranganatha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패싯분석에 관련된 원칙들은 그가 만들어낸 원칙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영향력있는 원칙들로, 20세기의 주제분석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han, Richmond & Svenonius 1985, 86-87).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문헌분류에서는 주제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통적인 열거식분류에서도 주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류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분규칙들은 논리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논리적 구분(logical division)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Mills 1962, 7-8). 그러나 전통적 분류에서는 전반적인 관계가

아닌 특정의 관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하향적'(top down)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논리적 구분방식을 CRG(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Ranganathan이 제시한 패싯분석기법을 선택했던 것이다(Chan, Richmond & Svenonius 1985, 155). 패싯분석은 기본적으로 상향적(bottom up), 귀납적(inductive) 분석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용어가 어떤 구분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체류(parent class)에 따라 범주화되게 된다. Ranganathan이 제시하고 있는 PMEST의 5개 기본 범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Vickery는 패싯분석기법에 따른 분류법은 전통적인 분류법과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Vickery 1960, 12-13). 즉 패싯분석의 결과는 첫째로 규칙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둘째로 패싯들의 자유로운 합성가능성을 가지며, 셋째로 지식의 복잡성을 더 잘 반영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패싯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대표적인 표본들을 추출해내어 이를 포커스(focus)⁴⁾가 될 수 있는 개념들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상담소에서는 <예 1>과 같은 예비 신랑 신부를 확보하여 결혼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⁵⁾

<예 1> 결혼상담소 고객의 예

남자 28세 레지던트 서울거주
이혼녀 35세 고졸 전업주부 부산거주

4) 분류이론에 관련된 국내의 상당수의 자료에서는 '패싯'과 '포커스'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써, 이하의 예들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재혼 남 60세 교수 수원거주
남 대졸 사무직 종사 월소득 200만원 대
대구거주

〈예 1〉의 예들은 〈예 2〉와 같은 개념들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2〉 추출된 개념들의 예

남자
28세
레지던트
서울
이혼녀
35세
고졸
전업주부
부산
재혼
남
60세
교수
수원
대졸
사무직 종사자
월소득 200만원
대구

〈예 2〉의 예들과 같이 아직 조직화되지는
않았으나 정의되고 별도로 구분된 요소들이
나 개념을 isolates라고도 한다(Maltby
1978, 35). 다음 단계는 이상의 개념들을 파
악하여 적절한 구분특성에 따라 패식으로 그
룹화해야 한다. 패식으로 그룹화하는 과정에
서는 동의어(synonym)와 동음이의어
(homonym)를 파악해내고, 아울러 합성주
제나 복합주제를 찾아내어야 한다(Buchanan

1989, 61). 〈예 2〉에서는 ‘이혼녀’가 복합주제
로서, ‘이혼’이라는 상태와 ‘여자’라는 성별
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결혼정보
관리의 측면에서는 ‘재혼’과 ‘이혼’은 준동
의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남자’가 동의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여 상기 예들을 패식화하면 〈예 3〉과
같다.

〈예 3〉 패식분석의 예 (일부)

[성별패식]

남자
여자

[연령패식]

28세
35세
66세

[직업패식]

레지던트
전업주부
교수
사무직 종사자

[거주지패식]

서울
부산
수원
대구

[결혼유형패식]

재혼(이혼)
재혼(사별)

[학력패식]

고졸

5) 이것은 단지 분석을 위해 제시되는 하나의 예로, 결혼상담소를 위한 완전한 분류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대졸

[월평균소득패킷]
200만원 이상

이상의 단계는 Ranganathan이 말하는 아이디어단계(idea plane)로서 분석적 합성식 분류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관련되는 주제에 대한 모든 분석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Ranganathan은 여러 분류 기준(canons)을 제시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은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라성의 기준(canon of exhaustiveness)은 어떤 분류특성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분류지를 망라적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예의 '결혼 유형' 패킷에는 '초혼'이라는 포커스를 추가해야 하고, 그 밖의 패킷에도 필요한 모든 포커스들을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절의 기준(canon of modulation)은 연쇄구조(chain), 즉 계층 구조의 연결 관계는 첫 번째 링크와 마지막 링크 사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의 유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지' 패킷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는 시도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명이고, '수원'은 시군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명이다. 따라서 수원의 경우에는 시도에 해당하는 '경기'를 수원의 상위에 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타성의 기준(canon of exclusiveness)은 동일한 배열구조

(array)의 어떤 유도 서로 중복되거나 공통의 실재를 가져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분류 대상에든 단 하나의 분류특성만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둘 이상의 분류특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차분류(cross classification)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하위패킷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기의 예에서는 '직업' 패킷에 '레지던트', '교수' 등의 구체적인 직종과 '사무직'이라는 직군이 같이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패킷은 적어도 <예 4>와 같은 두 개의 하위패킷으로 세분해야 할 것이다.

<예 4> 직업패킷의 하위패킷의 예 (일부)

[직업패킷]

[직군별 하위패킷](일부)

- 사무직
- 기술직
- 연구직
- 노무직
- 기타.

[직종별 하위패킷](일부)

- 레지던트
- 교수
- 전업주부
- 기타.

물론 이상의 각 패킷과 하위패킷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포커스들을 망라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패킷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6) Ranganathan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본 저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동근. 1994, 213-226 참조.

패킷에 대한 분석이 끝나게 되면, 그 분석을 토대로 각 패킷내의 포커스들의 순서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는 Hunter가 제시한 분류표 작성 순서대로 각 포커스에 대해 기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순서의 설정과 기호부여는 열거순서 등 다른 순서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기호의 부여는 각종 순서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2 각종 순서의 결정

패킷분석이 끝나면, 각 패킷에 속하는 포커스들의 순서와 각 패킷간의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에는 이들 순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2. 1 주류의 순서

주류(main classes)는 분류표에 나타나는 제일 첫번째의 구분단계이다. 주류는 분류표의 총체적인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구분정도 뿐만 아니라 그 순서는 분류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Sayers는 이를 '거시적 순서'(macro order)라고 했는지도 모른다(Maltby 1978, 57-59). 일반적으로 주류는 지식영역에 대한 관습적인 구분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분류표의 경우는 지식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게 된다. 아울러 이론적인 면에서 보면, 각각의 주류는 학문 전영역이라는 하나의 배열구조(array)에 속하는 등위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주류는

서로 대등한 수준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행의 분류표들은 분류표마다 주류의 수와 구분정도에 있어서는 물론 대등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DDC의 예만 하더라도, 주류가 인문과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거나, 언어와 문학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의 대부분의 분류표들은 SC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제가 아닌 학문이나 연구영역에 의해 주류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분류표들은 학문적 분류표 또는 측면적 분류표(aspect scheme)(Buchanan 1989, 126)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류표에서 특정의 주제들을 한 곳에 모으기 보다는, 그 주제들을 어느 측면에서 다루는가하는 학문적 관점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그 취급 방법에 따라 분류표에서는 여러 곳에 분산될 수 있는 것이다. DDC의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주제는 결혼음악에 관련된 경우는 음악에 분류되고, 결혼의 법적 문제는 법률학에 분류되고, 결혼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학에 분류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주류의 선정이 완료되면, 이를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주류의 순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류학자들마다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는 듯하다. Buchanan은 이용자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류안에서의 순서와 병치(並置)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분류표의 효율성에 대단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Buchanan 1989, 132). Ranganathan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고, 그보다는 유내의 마이크로적인 순서(micro order)에는 상당히 엄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arcella & Newton 1994, 35). 그리하여 Ranganathan은 분류표의 계획에 있어서 주류의 순서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Buchanan 1989, 133에서 재인용). 한편 Bacon의 학문분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DDC는 주류의 인문과학편중은 물론 언어와 문학의 분리, 역사와 사회과학의 분리 등으로 그 순서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Dewey가 철학적 연원이 모호한 초기의 분류표에 근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Marcella & Newton 1994, 35), 어쨌든 주류의 배열에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Bliss는 자신의 BC 이전에 개발된 일반분류표들은 학식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도서관학이라는 전문직의 위엄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Marcella & Newton 1994, 35). 이 말은 이전의 분류표들이 철학적으로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지식의 광범위한 영역들을 연결시키고 학문적 사상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C. A. Cutter와 E. C. Richardson도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분류는 진정한 과학적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바 있다(Marcella & Newton 1994, 35-36).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의 장점은 주류의 균등한 배분과 아울러 그 순서상의 논리성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Sayers의 지적대로 주류의 순서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순서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Maltby 1978, 59).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Buchanan이 이른바 '견뎌낼 수 있는 순서'로 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원칙, 즉 관련된 주류는 병치되어야 하고, 다른 주류에 좌우되거나 다른 주류로부터 또는 다른 주류보다 더 나중에 개발된 주류는 그 주류 다음에 오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Buchanan 1989, 133)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결혼상담소의 예는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경우로서, 주류를 선정하거나 그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2. 2 열거순서

열거순서(facet order)는 어떤 유(class)에 나타나는 둘 이상의 특성, 즉 패시들을 기호를 합성하기 위해 결합할 때 적용하는 순서를 말한다. 따라서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경우는 이를 구성하기 위한 패시들의 배열순서가 바로 열거순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Ranganathan은 열거순서라는 용어보다는 패시순차(facet sequ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순서를 결정해주는 식을 패시배열식(facet formula)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CC의 각 유에는 항상 패시배열식이 열거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열거순서는 구분특성(characteristic of division)을 구분의 대상이 되는 영역, 즉 피구분체에 적용하는 순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학이라는

피구분체는 문학이라는 '학문' 패킷과 '언어' 패킷, '문학형식' 패킷, '시대' 패킷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때 이 패킷들을 어떤 순서로 열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열거순서가 된다. 그것은 결국 문학이라는 피구분체에 어떤 순서로 각각의 구분특성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한편 열거순서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우선순위(preference order)가 있다. 우선순위는 기호를 합성할 때 그 기호들이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지시해주는 순서를 말한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패킷은 합성된 분류기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거순서의 경우는 열거되는 순서는 다르지만, 합성된 기호에 모든 패킷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열거순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다루는 문헌들은 함께 모일 수도 있고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거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문학의 예에서 '언어' 패킷을 '문학형식' 패킷보다 먼저 열거하게 되면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문학작품들은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는 반면, 시나 드라마, 소설, 수필 등의 작품들은 쓰여진 언어별로 분산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형식' 패킷을 '언어' 패킷보다 먼저 열거하게 되면 동일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은 한

곳에 모이는 반면, 동일한 언어의 작품들이 문학형식에 따라 분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⁷⁾ 따라서 열거순서는 문헌들을 우선적으로 함께 모을 수 있는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열거순서는 물론 이용자의 요구 내지는 필요성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즉 유용성을 갖는 순서(helpful order)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순서가 이용자에게 유용한가하는 데 있다. 아울러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한 순서, 그리고 모든 주제에 망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순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제분야에 따라 다양한 순서들이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열거순서의 결정에는 분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원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Ranganathan이 패킷과 배열구조의 유용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규범으로 제시한 '원칙' (principles)⁸⁾ 들을 비롯한 분류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Buchanan은 더 구체적인 것은 구체성이 적은 것보다 더 앞에 열거해야 한다는 구체성감소의 원칙(principle of decreasing concreteness)과 그 주제의 연구목표를 나타내는 유는 다른 어떤 유보다도 더 앞에 열거해야 한다는 '목표 또는 최종결과의 원칙' (principles of purpose or end-product), 열거순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7) 이와 같이 분산된 주제들을 Ernest Savage는 '분산된 관련항목'(distributed relatives)이라 하였다 (Buchanan, 48.). 이 분산된 관련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상관색인을 통해 함께 모이게 된다.

8) Ranganathan은 기본적으로 PMEST의 열거순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열거순서에 대해서는 많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열거순서(패킷 순차)에 관한 네 개의 원칙 및 배열구조상의 유용한 순서의 원칙에 대해서는 각각 Ranganathan, 1967, 412-434 및 181-197 참조.

주제의 구조로 생각하는 방법 특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합의의 원칙(principle of concensus), 종속된 주제는 그 주제가 의존하고 있는 유의 다음에 열거해야 한다는 벽과 그림의 원칙(wall-picture principle: Ranganathan이 제시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Buchanan 1989, 49-50).

결혼상담소의 예에서는 문헌적 근거의 원칙(principle of literary warrant)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출판물의 양을 배열순서의 기준으로 삼는 이 원칙을 원용하여, 고객들이 많이 찾는 순서대로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대략 성별패시 - 결혼유형패시 - 연령패시 - 직업패시 - 월평균소득패시 - 학력패시 - 거주지패시의 순서를 채택하기로 한다.

한편 분류표의 순서(schedule sequence)는 열거순서 또는 패시배열식의 역순이 되어야 한다. 이를 도치의 원칙(principle of inversion)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을 특수한 것들 앞에 배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권고되고 있다(도치의 원칙에 대해서는, Mills 1962, 18-20 참조). 따라서 분류표의 순서는 열거순서의 결정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담소의 예에서 분류표의 순서는 거주지 - 학력 - 월평균소득 - 직업 - 연령 - 결혼유형 - 성별의 순서가 될 것이다.

3. 2. 3 배열구조상의 순서

하나의 동일한 패시에 속하는 포커스들은

이른바 '등위류' 또는 '동위류'(coordinate class)로서, 이와 같이 계층구조상 같은 레벨에 있는 등위류들의 집합을 '배열구조'(配列構造: array)⁹⁾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패시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집합이나, '문학형식' 패시에 속하는 시와 드라마, 소설, 수필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학형식들의 집합이 바로 배열구조가 된다. 분류표에서는 유들의 순서화가 필수적이므로, 배열구조내의 유들의 배열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이 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인 순서나 알파벳순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분류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유용한 체계적인 순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제에 망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순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주제에 따라 다양한 순서들이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서 역시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모으고 유사성이 적은 자료들을 분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헌분류의 예만은 아니지만, <표 3>을 보면 동일한 지역들에 대한 구분과 그 순서가 배열구조상의 순서에 따라 어떻게 분산되고 모아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사용목적이 다른 서로 다른 세 분야의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문헌을 체계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순서로 어느 순서가 가장 바람직할

9) 'array'는 배열(配列)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이는 동사에서 온 배열(排列: arrangement)과 동일한 음을 갖는다는 문제도 있어, 명사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것인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결혼상담소의 예에서는, '성별' 패킷과 '학력' 패킷은 규범적 순서의 원칙(principle of canonical sequence: 전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정의 순서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 또는 합의의 원칙에 따라, 각각 대략 '남자 - 여자', '무학 - 초등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패킷과 '월평균소득' 패킷은 양적 증가의 원칙(principle of increasing quantity)에 따라 순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유형' 패킷은 복잡성 증가의 원칙(principle of increasing complexity) 정도를 선택하여, '초혼 - 재혼'의 순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지' 패킷은 공간적 인접성의 원칙(principle of spatial contiguity)에 따르고 있는 KDC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패킷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직군별' 하위패킷과 '직종별' 하위패킷 모두 문헌적 근거의 원칙(principle of literary warrant)을 원용하여, 고객들이 많이 찾는 직군과 직종의 순서, 곧 결혼상담소에서 인기

를 얻고 있는 직군과 직종의 순서대로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배열구조상의 순서는 3. 3. 2에 제시된 <예 5>와 같다.

3. 3 분류기호의 선택과 적용

패킷에 대한 분석과 각종 순서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서를 조직화하고 체계적이고 유용한 순서로 배열하기 위한 문헌분류표의 기본적인 작성은 완료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의 배열위치를 표시해주고 문헌의 배열과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분류기호를 추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류하면 곧 분류기호를 연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분류학자들은 분류기호를 '부차적인 것'(Bliss, 47-48)으로 간주하고 있다. Ranganathan도 분류기호의 부여와 관계되는 기호단계(notational plane)를 언어단계와 함께 아이디어단계에 대한 객(客)의 관계(master-slave relation)로 설명하고 있다.

<표 3> 분야별 한국의 지역패킷에 대한 구분유형과 순서, 코드

장거리자동차		우편번호		한국십진분류법	
지역구분	코드 *	지역구분	코드 *	지역구분	코드 *
서울	02	서울	1	강원	4
인천 경기 강원	03	강원	2	경기 인천	5
대전 충남북	04	대전 충남북	3	서울	6
대구 경남북	05	인천 경기	4	충남북 대전	7
광주 전남북 제주	06	광주 전남북	5	경남북 대구 부산	8
		부산 경남 제주	6	전남북 제주	9
		대구 경북	7		

* 코드는 공통의 대표적인 부분만을 제시함

즉 분류기호는 분류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앞서 살펴본 패킷분석과 각종 순서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uchanan의 지적과 같이, “이용자가 분류표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 기호의 질-특히 이용의 편리성 - 에 상당히 크게 좌우되며, 병치(並置)와 순서에 관한 모든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분류표가 그 기호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Buchanan 1989, 88)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분류에 관한 3단계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호단계는 아이디어단계의 발견결과를 구현하는 단계이므로, 기호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호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문헌분류표에서는 기호의 한계나 제약 때문에, 아이디어의 전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속성과 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3. 3. 1 분류기호의 일반적 요건

분류기호는 분류상의 배열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서수(ordinal numbers)로 된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로, 분류언어(classificatory language)라고도 한다. 분류언어는 어떤 주제나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문헌을 배열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학자의 통제를 받게 되는 통제어(controlled language)이다.

이와 같은 분류기호는 기본적으로 기호 사용의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과 분류

표에 갖추어져야 할 모든 유에 유일한 기호가 부여되도록 하는 속성의 두 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Buchanan 1989, 88). 이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분류기호의 성질과 요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호는 순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Bliss, 54; 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47-48). 주지하는 것처럼, 기호는 순서를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Mills 1962, 38). Vickery가 말하는 기호는 순서를 기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Vickery 1960, 48). 이 경우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순서가 명확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DDC의 분류기호로 사용되는 아라비아숫자와 불교경전의 분류에 사용되는 천자문의 한자를 비교해 보면, 이 성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호는 간략하고 단순해야 한다(Bliss, 54; 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52-53; Mills 1962, 39-41). 간략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읽고, 쓰고,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기호는 새로운 주제나 토픽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hospitality)을 가져야 한다(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53-57; Mills 1962, 41-43; Vickery 1960, 48). 지식의 발전에 따른 새로

운 주제와 토픽들의 출현에 대비하여 이들을 분류표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기호는 주제와 토픽들의 계층적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Buchanan 1989, 93; 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48-52; Vickery 1960, 48). 이것은 주제와 토픽들의 상하관계를 기호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로, 기호는 조기성을 가질 수도 있다(Buchanan 1989, 94; 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57-58). 조기성은 기억을 도와주는 성질로서, 기호체계속에 조 기법을 적용시키면 검색할 때 추리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남태우 1992, 213), 조기성이론이 중시되기도 한다. 특히 CC를 비롯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기성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로, 기호는 패시의 각각의 변화와 상관계(phase relationships)의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할 수도 있다(Buchanan 1989, 116-118; Maltby 1978, 74; Marcella & Newton 1994, 58-61). 패시의 구분을 위해서는 패시지시기호(facet indicator)를 도입하고, 비교관계나 영향관계와 같은 상관계를 나타 내기 위해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분류표에 적합한 기호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때로는 이상의 요건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호로 하여금 계층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기호는 간략해야 한다는 점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표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요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수도 있다.

3. 3. 2 분류기호 적용의 실제

이상에서 제시한 요건에 비추어, 숫자와 문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알려져 있는 순서를 갖는다는 점에서(Buchanan 1989, 89), 분류기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아라비아숫자와 알파벳문자는 실제의 분류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호들이다. 그리하여 본고의 결혼상답소의 예에서는 이 두 기호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pure notation)에 따라 기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예 5〉 참조).

〈예 5〉의 첫번째 기호법은 순수한 아라비아숫자만으로 이루어지며, '0'을 패시지시기호 또는 펜스기호(fence)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패시가 바뀔 때는 '0'을 붙여 구분해 주게 된다. 물론 '0'을 패시지시기호로 사용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아울러 거주지패시와 연령 패시, 결혼유형패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층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기호화하였다. 연령패시에 대해서는 조기성을 부여하였다. 두번째 기호법은 알파벳 대문자를 기호로 사용하고 아울러 각 패시에 대해 별도의 패시지시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거주지패시에서는 계층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기호화하였으며, 성별패시에 대해서는 각각 'male'과 'female'의 머리

<예 5> 결혼상당소용 분석적 합성식 분류
표의 본표 (패시별 기호표 포함)

[거주지패시] (일부만 전개)

강원	1	=A	ab
경기 인천	2	=B	ac
경기	21	=BA	acb
인천	22	=BB	acc
서울	3	=C	ad
충남북 대전	4	=D	ae
충남	41	=DA	aeb
충북	42	=DB	aec
대전	43	=DC	aed
경남북 대구 부산	5	=E	af
전남북 제주	6	=F	ag
기타	9	=Z	az

[학력패시]

무학	1	&A	bc
초등졸	2	&B	bd
중졸	3	&C	be
고졸	4	&D	bf
대졸	5	&E	bg
대학원졸	6	&F	bh

[월평균소득패시]

50만원 미만	1	:A	cd
50만-백만	2	:B	ce
백만-150만	3	:C	cf
150만-200만	4	:D	cg
200만-250만	5	:E	ch
250만-300만	6	:F	ci
300만원 이상	7	:G	cj

[직업패시]

[직군별 하위패시](일부)

사무직	111	-AA	de
기술직	116	-AC	dg
연구직	121	-AE	di
기능직	126	-AG	dk
노무직	131	-AI	dm
기타	199	-AZ	dz

[직종별 하위패시](일부)

의사	211	-BA	ef
판검사	216	-BC	eh
변호사	221	-BE	ej
대기업사원	226	-BG	el
공무원	231	-BI	en
자영업자	236	-BK	ep
전업주부	241	-BM	er
교수	246	-BO	et
기타	299	-BZ	ez

[연령패시]

15세 미만	11	,A	fg
15-19세	15	,B	fh
20-24세	21	,C	fi
25-29세	25	,D	fj
30-34세	31	,E	fk
35-39세	35	,F	fl
40-49세	4	,G	fm
50-59세	5	,H	fn
60-69세	6	,I	fo
70세 이상	7	,J	fp

[결혼유형패시]

초혼	1	*A	gh
재혼	2	*B	gi
사별	21	*BA	gih
이혼	22	*BB	gii

[성별패시]

남자	1	M	hi
여자	2	F	hj

글자를 따 조기성을 부여하였다. 세번째 기호법은 알파벳 소문자를 기호로 사용하는 소급적 기호법(retroactive notation)을 채택하였다.(소급적 기호법에 대해서는, Buchanan 1989, 104-105 참조). 세 기호법 모두 직업패시의 두 하위패시에는 새로운 주제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간격기호(gap notation)를 두었다. 아울러 거주지패시 등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층적으로 추가의 세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호가 부여되면 분류표로서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알파벳순 또는 가나다순 색인을 추가하면 완전한 분류표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3. 3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를 활용한 분류작업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를 활용한 분류작업은 문헌에 구체화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주제를 분류기호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는 열거식분류표를 사용한 분류작업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열거식분류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류표에 나타나 있는 기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에,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경우는 기호를 합성(synthesis 또는 number building)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합성의 이점 때문에 많은 열거식 위주의 분류표에서 이 기법을 도입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한편 Ranganathan은 분석과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분류작업을 다음과 같은 여덟 개의 연속적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439-449).

- 제0단계 원래서명(raw title)
- 제1단계 표현적서명(expressive title)
- 제2단계 핵심어서명(title in kernel terms)
- 제3단계 분석서명(analyzed title)
- 제4단계 변형서명(transformed title)
- 제5단계 표준 용 어 서 명 (title in standard terms)
- 제6단계 포커스 기 호 서 명 (title in focal numbers)

제7단계 분류기호(class number)

이러한 단계는 물론 그의 문헌분류에 관한 3단계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0단계에서 4단계는 아이디어단계, 5단계는 언어단계, 6단계와 7단계는 기호단계에 해당한다. 결국 표제지나 문헌에 나타나 있는 서명을 그 문헌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를 주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고, 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분석해 내어 표준화한 뒤, 이를 분류기호로 변환하여 패싯배열식에 따라 합성시키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예는 오동근, 1989, 25-27 참조).

결혼상담소의 예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상대자를 찾아낼 수 있는 분류기호를 합성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미 열거순서가 정해졌으므로, 이에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해당 기호를 이미 제시된 분류표에서 찾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 6>은 앞서 제시한 세 기호법에 따른 합성된 분류기호의 예이다. 여기서 (1)부터 (4)는 결혼상담소 데이터베이스에 소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예이고, (5)와 (6)은 상담 고객이 요구하는 대상을 분류한 예이다. (5)와 (6)의 예는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이 정보검색시에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첫번째 기호에서는 '0'을 패싯지시기호로 사용하였는데, 특정패싯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패싯지시기호를 부여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분류기호는 단순한 반면 길어지게 된다. 두번째 기호는 각

〈예 6〉 합성된 분류기호의 예

1	남자 28세 레지던트 서울	10102502110003	M*A,D-BA=C	highfjefad
2	이혼녀 35세 고졸 전업주부 부산	2022035024100405	F*BB,F-BM&D=E	hgiiflerbfaf
3	재혼 남 60세 교수 수원	10206024600021	M*B,I-BO=BA	higifoetacb
4	남 대졸 사무직 월 200만원 대구	10100111050505	M*A-AA:E&E=E	highdechbgaf
5	판검사 신랑감 서울	10002160003	M-BC=C	hiehad
6	대졸 여성	2000005	F&E	hjbg

패시마다 별도의 지시기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기호는 간략한 반면 복잡해지게 된다. 세 번째 기호는 소급적 기호로 간략한 반면 패시의 수가 많을 경우 기본적인 패시의 기본 기호(base number)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분류기호의 선택시에는 각 기호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분석적 합성식 분류법의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열거식분류법과 대비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그 일반적인 작성 단계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결혼상담소용 분류표의 작성이라는 실례를 통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패시분석과 주류의 순서 및 열거순서, 배열구조상의 순서 등 각종 순서의 결정, 분류기호의 선택과 적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색인과 서문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상담소용 분류표의 예에서는 거주지 패시와 학력패시, 월평균소득패시, 직업패시, 연령패시, 결혼유형패시, 성별패시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간략한 분석용 예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의 모든 특성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최종적인 기호부여와 합성과정까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개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각 패시의 미전개된 부분들을 추가로 전개하고 새로운 포커스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추가의 패시들을 새로이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열거식분류표의 경우와 같은 분류표 전반에 걸친 추가의 전개가 필요치 않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패시식' 또는 '패시구조' 분류법(faceted classification)과 '배열구조'(array)와 같은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해 보았다. 특히 문헌분류에 있어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의 검토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Atherton, P. 1965. Ranganathan's Classification Ideas: An Analytico-synthetic Discuss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9, No. 4, pp.463-473.
- Bliss, H. E. 1939.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on Libraries and the Subject Approach to Books*, 2nd ed. New York: The H. W. Wilson Company.
- Buchanan, Brian 저; 정필모, 오동근 공역. 1989. *문헌분류이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Chan, Lois Mai, P. A. Richmond & E. Svenonius, ed. 1985. *Theory of Subject Analysis: A Sourcebook*,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 Chan, Lois Mai. 1994.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 Hunter, Eric J. 1988. *Classification Made Simple*, Aldershot: Gower.
- Kumar, Krishan. 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ise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 Maltby, A.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 Marcella, Rita & Robert Newton. 1994.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 Hampshire: Gower.
- Matthews, G. O. 1980.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Mills, J. 1962.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hapman & Hall. (일본어판: Mills, J. 著; 山田常雄 譯. 1982. *現代圖書館分類法概論*, 東京: 日本圖書館研究會.)
- Parkhi, R. S. 1972. *Library Classification: Evolution of a Dynamic Theory*.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Ranganathan, S. R. 1989. *Colon Classification*, 7th ed. 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 Ranganathan, S. R. 1959. *Elements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The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
- Vickery, B. C. 1960. *Faceted Classification: A Guide to Construction and Use of Special Schemes*. London: Aslib.
- 圖書館問題研究會編. 1982. *圖書館用語辭典*, 東京: 角川書店.
- 河島正光. 1987. 多元方式分類, *現代の圖書館* 25(2), pp.71-75.

- 김명옥. 1986. 자료분류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김정소. 1983. 자료분류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남태우. 1992.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 연구. 도서관학 제22집. pp.179-217.
- 리재철. 1970.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도서관학 제1집. pp.1-57.
-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오동근. 1989. Ranganathan의 3단계 분류이론. 도서관학연구지 제14호. pp.17-29.
- 오동근. 1994. Ranganathan의 문헌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 도서관학논집 제21집. pp.195-229..
- 윤희윤. 1998.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출판사.
- 이병수. 1979. 도서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서울: 광덕문화사.
- 이은철. 1983. 콜론분류법: 발전 및 CC의 관점에서 본 KDC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20(1). pp.53-62.
- 장명섭 등. 1992. 재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분류 및 검색방법.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제19권 제6호. pp.602-613.
- 정해성. 1996. 열거식분류표가 지향하는 조합식분류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논집 제24집. pp.449-484.
- 최정태 등저.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출판부.